

공종별 이론·시공 두루 섭렵한 전문가 양성, 마스터 제도

서명철 / 선경건설 기전부 부장

최근들어 국내 건설회사들이 건설업의 국제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인간힘을 쏟고 있다.

선경건설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93년부터 마스터 제도를 도입, 최근에는 활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마스터 제도는 한 공종에 대해 시공은 물론 이론, 제반 법규 등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서, 선경건설은 이 마스터 제도를 통해 고품질의 시공은 물론 인력난 시대에 대비, 정예의 적은 인원으로 본사에서 전 시공현장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마스터 제도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월 1회 발표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선경건설은 올해를 협력업체 육성의 해로 선포한 만큼 마스터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국 그 이익은 선경의 이익으로 발전한다는 개념 아래 협력업체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편집자 주>

향후 건설현장은 현장관리를 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에 대비키 위해 한 공종에 대해 전문가 한사람이, 해당되는 현장을 돌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활용되면

각 현장마다 동일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건설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기술과 생산성이 성공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은 건설업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설업체는 협력업체보다 더

속속들이 알아야 협력업체를 뒷받침 해 주므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업체는 건축의 각 분야에 대해 속속들이 깊이 아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능공들이 수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과 과정에도 언급돼 있지 않는등

학문적인 정리나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아는 정도만으로 더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닌,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아는 마스터가 필요하며 이론 및 경험의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현장의 노무관리란 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분석, 정리할 수 있는 마스터가 있다면 어느 현장에서도 표준화된 노무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은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강의가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갖춘 마스터에 의한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업무 수준도 높아짐은 물론,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축적, 계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신기술 도입에도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이 마스터 제도는 선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SUPEX 추구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SUPEX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실시하는 사람이 바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스터는 결과적으로 개인 SUPEX는 물론 부서SUPEX,

“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닌,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아는 마스터가 필요하며 이론 및 경험의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나아가 회사 SUPEX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이미 각 분야의 SPECIALIST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마스터라는 명칭만 없었을 뿐 마스터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단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기능공들이 하는 일까지 내가 알고 해야 하나'라는 거부반응도 있었으나 지금은 기존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추세이다.

지난 93년부터 이 제도의 준비작업에 들어가 올해부터는 월1회 발표회를 갖는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마스터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대를 이음은 물론 특히 각 공종별로 하자에 대한 분석, 대안제시 등에도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선경은 향후 마스터 제도가 완전 정착하면 기존의 협력업체 위주의 공종별 마스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PRODUCT별(병원, 학교, 오피스 빌딩, 노인 휴양지 등) 마스터를 양성할 계획이다.

마스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터 제도의 목적

전문공종에 대한 올바른 시공기술을 보유, 지도, 개선을 통한 최상의 품질확보 및 기술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

2. 마스터의 정의

전문공종의 다양한 시공방법 및 기능에 이론적 기술을 도입,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공기술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마스터의 역할

- ① 해당공종 협력업체를 L.H.C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② 해당공종에 대한 기술적 이론+기능적 체험을 통한 최선의 시공방법 제시
- ③ 각 시공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파악, 개선 및 원가절감
- ④ 신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적용
- ⑤ 해당공종에 대한 현장의 L.H.C

4. 기대효과

마스터의 지정 및 활용으로 개인별 기술 및 CAPACITY 증대는 물론 협력사의 수준 향상과 함께 시공능력 제고를 통해 시공원가 절감 및 PJT

CENTRAL CONTROL화에 활용, 현장 품질 제고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5. 마스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아이템

① 관련법규 분석

해당 공종과 관련된 법규, 규칙, 조례, 시설기준 등을 분석하고 해당공종에 대한 인허가 관련업무를 조사한다.

② 설계능력 함양

관련공종 설계기준 및 타회사 설계기준 습득

- 착공전·후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원가절감 및 품질제고

- 해당공종 표준설계지침서 작성

③ 시공능력 함양

- SKEC내외 해당공종에 대한 현장체험

- 해당공종에 대한 표준시공 절차 확립

- 주요 하자 다발부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공법개선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정보의 지속적 습득

- 타공종과의 WORK SCOPE 구분

- 시공원가 절감방안 수립

- 시공 체크 리스트 작성

- 현장시공 지원 및 점검

- 표준시공 매뉴얼 작성

- 품질관리 절차서 개폐정 참여

④ 협력업체 현황파악

- 업체의 규모 및 자산 상태

- 기능공 보유 현황

- 기능공 생산성 및 단가

- 시공 시스템(재하도급 등)

- 기술개발 및 투자관련

- 본사의 현장지원 체계

- 주거래 업체 및 평판

⑤ VENDOR 현황 파악

- 업체의 규모 및 자산상태

- 제품생산능력

- 불량 처리능력

- 기술개발 및 투자

- 연구소 현황

- 주거래 업체 및 평판

⑥ 자재특성 파악

- 해당공종 각 자재 및 부품에 대한 특성 파악

- 공장방문에 의한 생산 프로세스 파악

- 해당공종 자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및 관리

- 각 자재별 검수 요령서 작성

- 국내외 해당자재에 대한 신정보 습득 채널 파악

- 자재에 대한 보양 및 설치 후 유지관리 방법

- 시공성

- KS규정등 각종 규정 확인

⑦ 장비특성 파악

- 동종 장비의 국내외 업체 현황

- 장비의 주요 기능 및 사용 방법

- 장비 수명 및 유지관리

- 장비 구입 방법 및 경로

- 대금지불 조건

- 장비선정 요령

- 장비검수 요령

- 국내외 해당장비에 대한 신정보 습득 채널 파악

- 표준 RFQ작성

⑧ 기타

- PROPOSAL 지원

- 타 현장 현실시 참가 및 현실자료 작성 및 지원

- 기전직 및 타부서 직무 교육시 교재작성 및 강의

- 하자보수 지원

6. 활용계획

현재까지는 일정 수준을 확보한 마스터가 본격적으로 마스터 활용을 하기에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추진될 경우 98년부터는 일정수준을 갖춘 마스터의 본사근무로 해당공종에 대한 CENTRAL CONTROL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마스터 현황

① 설비 : 위생기구설치, 덕트, 배관, 수처리(정수), 수처리(오수, 중수), 자동제어, 소음·진동, 장비설치-열원장비, 장비설치-펌프·팬류, 소방설비

② 전기 : 수변전 설비, 배관 및 배선,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주차 시스템, 전격공공사. 터널전기공사. 자동제어 공사. 소방설비, CATV